



동국대 선학과 교수 현각 스님



해당하는 지역이다.

세검정 인근에 다다라 대원군의 별장이었던 석파랑이 보인다. 그 뒤가 마니사이다. 마니사는 인왕산의 깎아지른 듯한 산세에 인접한 곳으로 부암동 고갯마루 길과 세검정 사이에 위치한다.

나그네는 석파랑에 차를 대고 바로 옆 골목을 걸어 올랐다. 가파른 경사지만 다행히 사람이 다닐 만큼의 폭 이상 눈은 맑끔하게 치워져 있었다.

골목의 막다른 곳에 다다랐다. 마니사다. 마니사의 '마니'는 광명진언에 보이는 말로 진주라는 뜻이다. 안에 들어서니 초목이 바위와 어우러지고 설경을 더한 것이 도심 속 절경이 따로 없다. 서울 시내 이런 곳이 또 있을까? 문필봉을 중심으로 북한산이 한 눈에 들어온다.

서울 속 산사 마니사는 골목길 50여 m 사이에 두고 차들이 부대끼는 6차선 도로와 함께 있었다. 이 백이 그의 시 '산중답속인(山中答俗人)'을 통해 읊해 "이곳은 별천지이지 인간 세상이 아니라네(別有天地非人間)"라는 말로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곳. 마니사에서 현각 스님을 만났다.

전북 정읍에서 출생한 스님은 선전에 가서 "군자가 되어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부끄러운 일이다(君子恥一物不知)"라는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했다. 선전의 가르침은 소년이었던 스님의 지적 욕구를 자극했다. 소년은 무엇인가를 알려는 욕심, 지식에 대한 욕망을 키웠고, 그것은 도와 도인에 대한 막연한 동경으로 이어졌다.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속세를 떠나 깊은 산 속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은 스님을 속리산으로 이끌었다.

속리산(俗離山). 현강왕 12년(886)에 속리산 도덕암을 찾았던 고은 최치원은 산세를 보고 시를 읊었다. "도는 사람을 멀리하지 않는데 사람은 도를 멀리 하려하고, 산은 세속을 여의지 않는데 세속인은 산을 여의려 하네(道不遠人人遠道, 山非離俗離山)." 구룡산이라 불렀던 산이 속세를 떠나는, 속리산이 된 유래다.

스님은 속리산을 찾아 은사인 혜정 스님(법주사 회주)에게 출가했다. 전기불도 없던 시절이었다. 현

생활 속에 '선'이 없다면 불교는 생명력 잃은 것

각 스님은 법당에서 태우다 남은 초를 가져다 생각작을 태우며 부엌에 노릇으로 출가자의 길을 시작했다.

지적욕구를 채우기 위한 출가였기에 생장작이 타면서 피어난 연기로 눈물을 흘리면서도 스님은 책을 보고 싶었다. 그런 공양간 살림을 하면서 스님이 생각한 묘수는 강두 소임을 맡는 것이었다. 강두는 국을 끓이는 소임이다. 불을 피우고 찌개를 끓이는 동안 스님은 장작불에 책을 읽으며 지식에 대한 갈증을 달랬다.

"도가 산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처에 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서 공부해서 깨쳐야겠다는 욕심만 가득했지요."

당시 은사스님은 현각 스님에게 수행·포교·역경의 3대 중단사업을 말하며 "역경도 '알아야' 제대로 할 수 있고, 포교·수행도 '배워야' 바로 할 수 있

현각 스님은...

전북 정읍 출생. 혜정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2년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동국대 석·박사 과정 후 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각원장, 불교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선학회 초대 학회장과 美 하버드대 세계종교연구센터 초청 연구교수 등을 지냈다. <선학의 이해> <선어록산책> <행복에 이르는 뜻> <날마다 좋은 날>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다. 스님이 반백년에 가까운 세월을 동국대 교정에서 보내는 동안, 교정 곳곳 어느 곳 하나 스님의 눈길 닿지 않는 곳은 없었다. 어느 날이든 불을 제일 먼저 알리는지, 또 어떤 나무가 가을을 가장 먼저 알리는지 전령사가 되는지 등 스님은 동국대 곳곳을 '부처님 손바닥'처럼 보게 됐다.

학교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스님의 애교심도 남달랐다. 동국대 교내 법당인 정각원 원장 시절 부처님 오신날 3000개의 연등을 교내에 장엄하고, 그 연등비를 후학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학자투, 대정부시위 등으로 최루탄이 매개했던 교정은 정각원에서 설치한 연등으로 대학생들의 데이트 명소가 되기도 했다. 또, <정각도량>(당시 정각원 보)을 창간해 동국대 구성원의 신행생활을 도왔다.

특히 학자로서는 국내에서는 생소했던 선학을 학문으로 체계화시켰다. 2000년 한국선학회를 창립해 선학의 저변확대와 신진학자의 등용문으로 활용했다. (한국선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선학>은 최근 학술진흥재단에 국내저명학술지로 등재되기도 했다.) 특히 스님의 대표저서인 <선학의 이해>는 선학전공자의 필독서일 뿐만 아니라 동국대 학생의 교양과목으로 매학기 강의가 이어지고 있다.

또, 스님은 학교 활동만으로는 광도종생의 출가분을 다할 수 없다는 생각에 자아완성, 광도종생, 정법교화,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2004년 마니사에 마니불교아카데미를 세우고 <마니불교>를 펴내고 있다.

현각 스님은 "행하거나 머무르거나 앉거나 눕거나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움직이거나 조용히 있거나

지식에 대한 욕망으로 속리산 찾아 법주사서 출가

선학 학문으로 체계화... 한국선학회 창립 저변 넓혀

다"고 가르쳤다.

공양간 생활을 마치고 스님은 강원에 들어갔다. "이제는 하고 싶은 공부를 실컷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강원에서 처음 배우는 <치문>부터 막혔다. 어려운 글이 너무 많아 하루 2줄 밖에 읽지 못했다.

현각 스님의 머릿속은 "이래서 어느 세월이 '팔만 대장경'을 다 읽을 수 있을까? 도를 이루면 오도송(悟道頌)을 쓴다는데 이렇게 무식해서야 어찌할까?"라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래서 스님은 교학을 공부하겠다고 재발심했다. 오도송을 짓기 위한 도구를 마련하고자 시작했던 공부는 스님을 모교인 동국대에 남게 했다. 스님은 "‘입보종생’이라는 말을 실감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현각 스님은 1987년부터 현재까지 동국대 선학과 교수로 봉직중이다. 20년이 넘는 세월이 학생시절까지 더하면 40여 년을 종립대학 동국대인으로 살아왔

한파와 폭설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지역 강설량 25.8cm. 기상관측 이래 최대라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지 10여 일이 지났건만 서울 시내 곳곳은 여전히 하얗다. 수운주도 끈두박질 쳐 이래저래 예사롭지 않은 겨울이다. 날씨가 춥다.

연일 TV 등 매스컴에서는 세종시와 관련한 보도가 끊이지 않는다. 처마에 매달린 코드튠 만큼이나 민심도 끈두선 때다. 나그네가 길을 나선 때는 총리가 바짝바짝 타는 입을 적시며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던 날이었다.

600년 전 조선 태조 이성계가 민심을 혁파하고 새

로운 정치를 펼치기 위해 찾은 서울은 나라의 중앙에 자리한 명당이었다. 서울은 음인 용이 백두산에서부터 온갖 변화를 하며 내려오고, 양인 물은 남한강 북한강이 양수리에서 만나 한강을 이뤄 서울을 휘감은 산수교향, 음양교향의 터다. 북쪽으로는 북악산과 서쪽의 인왕산, 남쪽의 목멱산(남산), 동쪽의 낙산(동대문 근처)에 둘러싸인 곳이 경복궁이다.

청와대를 지나 부암동 고개를 넘었다. 고개 위로는 서울 시내 드라이브 코스 중 하나인 인왕스카이웨이 가, 고개 아래로는 자하문 터널이 지난다. 명당을 논할 때 말하는 '좌청룡 우백호' 중 백호(白虎)에

귀신뽑는 신통술!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과 모습의 점괘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상대방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

귀신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제 권하기가 쉽습니다!

- * 귀장술 12신궁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 귀장술 12신궁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 귀장술 12신궁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 귀장술 12신궁의 매매·이동운 보는 법
-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 귀장술 12신궁의 금전재물운 보는 법
-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 부부인연(因緣)에 낀 액운厄運(厄運)을 막는 법
- * 집안 동토(東土)귀신(鬼)을 알아내는 법
- * 자녀(子女)의 착취(착취)된 정단(定)법
- * 취직(就職)시험·승진(昇進)시험의 합격(合) 판단(判)법
- * 선거(選) 후보(候補)당선(當選) 여부를 판(判)단(斷)법
- * 관(官)청(淸)·공무(公)원(元) 빈자리(빈자리) 입(入)관(官)가능(能)여부
- * 소송(訴訟)·관(官)재(재)사의 승(勝)판(判)단(斷)법
- * 보고(報)고(告)싶은(은)사(事)람(람), 기(期)다(다)리(리)는(는)사(사)람(람) 소(소)식(식)가능(能)일
- * 가(家)출(出)자가 언(言)제(제)쯤(쯤) 집(집)에 돌아올(來)까?
- * 잃(잃)어버(버)린(린) 분(分)실(실)물(물) 위(위)치(치) 추(추)정(정)법
- * 도(道)주(주)·도(道)망(망)가(가) 사(사)람(람)이 어느(어느)쪽(쪽)으로 갔(갔)을까?

- * 12신궁 숨어있는 조상(宗)원(元)귀(鬼)법
- * 12신궁에 암(暗)장(藏)된(된) 악(惡)령(令)귀(鬼)신(神)
- * 귀장(歸)술(術)歸(歸)藏(藏)術(術)로 보는 前(前)生(生)투(投)시(時)법
- * 前(前)生(生)의 夫(夫)婦(婦)인(인) 원(元)침(沈)살(殺)이 現(現)生(生)에 미(미)치(치)는(는) 현(現)상(相)
- * 귀장(歸)술(術)歸(歸)藏(藏)術(術)로 뽑(뽑)은 빙(氷)의(의)착(着)귀(鬼)신(神)론(論)
- * 귀장(歸)술(術)歸(歸)藏(藏)術(術)로 뽑(뽑)은 사(死)후(後)환(換)생(生) 귀(鬼)신(神)작(作)해(해)론(論)
- * 산(山)소(소)·무덤(墓)에 관(關)해(해)서(서) [음(陰)택(택)법(法)]
- * 무덤(墓)안(안) 유(遺)골(骨)의 현(現)재(在)상(相)대(대) 알아(알)내는(는) 법(法)

글·백초스님 상·하권 / 720면 / 정가 각 120,000

